

日本の石油先物시장 설립가능성과 문제점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뉴욕 및 런던의 石油先物市場이 국제석유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석유소비지의 하나인 日本에 石油先物市場이 창설된다면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日本의 石油先物市場설립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編輯者註)

◇ 24시간 거래체제 확립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의 가격지배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뉴욕과 런던의 石油現物市場이나 石油先物市場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1983년에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개설된 WTI 原油의 先物市場은 작년말부터 原油가격의 폭락과 그후의 심한 가격 변동하에서 급성장하여 금년 1~9월의 평균 거래량은 하루 3천백만배럴로 자유세계 原油생산량의 70%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NYMEX에서는 暖房油와 휘발유의 先物市場도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11월에는 WTI 原油의 先物 옵션거래(선택권부선물거래)도 개시될 예정이다.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는 이미 暖房油의 先物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가을에는 새로이 重油와 휘발유가 거래되고 있다. 또한 과거 두번이나 실패한 北海브렌트原油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형태 하에서 先物거래가 시작될 것이다. 先物市場에서의 대부분의 거래는 이른바 “書類上(Paper)거래”이지만, 石油 생산자, 정제회사, 무역업자, 수요자등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투자은행, 일반투자자등도 다수 참가하고 있어, 장래의 石油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先物市場에서 결정된 가격정보는 컴퓨터와 정보망을 통하여 전세계에 순식간에 전달되어, 세계석유가격의 선행지표역할을 하게 되었다. 歐美諸國에서 石油先物市場이 급성장한 것은 石油의 시장 상품화, 금융상품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만약 세계 3대석유소비지의 하나인 日本에 石油先物市場

(歐美의 石油先物시장 거래량 추이)

(단위 : 백만B/D)

	1982	1983	1984	1985	1986 1 ~ 3 월	4 ~ 6 월	7 ~ 9 월
○ 뉴욕상품거래소							
原 油 (83년 3 월)	—	171	728	1,613	2,583	3,182	3,592
暖 房 油 (78년 11월)	687	735	769	844	1,161	953	1,402
有鉛휘발유 (81년 10월)	42	165	259	266	397	612	384
無鉛휘발유 (84년 12월)	—	—	17	54	69	49	97
○ 런던국제석유거래소							
暖 房 油 (81년 4 월)	190	184	162	154	275	256	244
原 油 (83년 11월)	—	7	4	11	4	—	—

註) 괄호안은 거래개시일.

이 창설된다면 金, 외국환, 채권등과 함께 뉴욕, 런던, 東京에서 24시간 石油거래체제가 확립된다. 나아가서는 原油가격에 대한 日本의 영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日本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네트백 방식(現物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石油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는 原油가격은 日本시장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로테르담시장에서의 제품 현물가격에 의거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매우 불투명하며 국제가격과 연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래 日本에 석유제품 先物시장이 개설된다면 가격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내제품가격을 기초로 하여 原油가격이 형성되며 日本에 原油를 공급하고 있는 中東, 아시아, 멕시코등 산유국의 原油가격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先物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다음 4가지 점을 들 수 있다. ① 심한 가격변동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 ② 심한 가격통제나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거래되고 있을 것, ③ 생산과 소비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로 분산되어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④ 업체의 중심 멤버가 先物거래의 활성화를 지지할 것, 또는 적어도 반대하지 않을 것 등이다.

뉴욕과 런던의 石油先物시장이 있는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OPEC의 수급조정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原油가격이 대폭 변동하고 있다. ② 北海, 멕시코등의 非OPEC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급증하

고, 산유국간의 수출경쟁이 심각하다. ③ 美國·英國을 중심으로 한 선진공업국에서의 石油시장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④ 대폭적인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이저도 先物시장에 참가하게 되었다.

◇ 문제는 시장자유화 템포

그럼, 日本에서의 石油先物시장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4개항목의 조건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현상태로서는 石油보다도 석유제품쪽이 先物시장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왜냐하면 日本에 대한 주요 原油공급원인 中東이나 아시아 산유국에서는 국영석유회사가 직접 原油생산을 지배하고 있다. 공급자의 수도 소수이며, 자유경쟁시장이 형성되어있지 않다. 더우기 이들 OPEC 산유국은 先物시장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石油제품의 경우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자가 산유국 뿐만 아니라, 石油수입국으로부터도 기대할 수 있고, 공급원의 다양화, 분산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石油제품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先物거래에 의거해 現물인도가 필요해지면 原油와 달리, 제품의 경우는 국내 정제회사로부터의 공급도 가능한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原油제품 무역에 대해서는 나프티를 제외하고 아직 정부의 규제하에 있으며 완전한 자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작년 12월에 성립된 “특정석유

●日本은 작년 12월에 성립된 “특정석유제품수입 잠정조치법”에 의거, 금년부터는 휘발유·등유등의 제품수입이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으나, 수출에는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다. 日本 국내시장은 「石油業法」에 의해 각사별 생산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행정지도에 의해 생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제품수입 잠정조치법”에 의거해 금년부터는 휘발유·등유등의 제품수입이 부분적으로 자유화 되었으나, 수출에는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다. 日本 국내시장은 「石油業法」에 의해 각사별 생산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행정지도에 의해 생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日本에서 石油先物시장이 성립될지는 이와같은 정부규제가 언제 철폐되어 原油시장의 완전자유화, 국제화가 어떠한 템포로 진행될 것인가에 크게 달려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감안하면 우선은 거의 완전자유화 되어 있는 나프타에 대해 先物시장 창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1982년에 석유화학업계의 강한 요망으로 나프타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는 60%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國產 나프타 가격은 수입가격에 직접 연동시켜 결정하는등 자유화·국제화가 선행되고 있다.

石油가격이 계속해서 큰 변동폭을 보이는 가운데, 日本의 석유화학회사, 석유회사, 상사·무역업자, 해외석유관계자등으로서는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위해서도 나프타의 先物시장은 유용할 것이다. 우선 먼저, 나프타를 검토하고, 점차 B-C油, 등유, 휘발유, 그리고 原油공급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原油의 先物시장으로 대상유종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日本 石油先物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石油관계자가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先物시장과 表裏의 관계에 있는 日本 石油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둘러싸고 업계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산유국에서 수출정유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제품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등

의 국영석유회사에 의한 美國과 유럽에서의 下流部門 매수나 자본참가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日本의 石油정책의 근간이 되는 「消費地 精製主義」는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일층 시장개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

日本에 석유선물시장이 개설된다면 日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해외시황과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原油시장의 자유화·국제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日本의 石油산업은 멀지않아 해외 석유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잇달은 石油기업의 합병이나 과잉정제설비의 폐쇄등, 日本에서 石油산업의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관점을 달리해 보면, 장래 日本의 石油시장이 일층 자유화된다면, 현재 싱가포르가 아시아지역에서 맡고 있는 石油무역센타로서의 기능을 日本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韓國, 대만, 홍콩, 東南아시아諸國, 中共, 美國서해안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石油무역은 세계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日本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石油산업은 국내시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유화에 따른 어려움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겨냥해 나가야 할 것이다. 日本 石油先物시장의 창설문제는 이와같은 장기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시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경제신문 10. 9)